

월요광장

부모라는 이름의 외로운 별들



정 봉 남
순천 기적의도서관장

초등학교 엄마들은 젊고 의욕적이다. 아이 교육에 관심이 높아 학교 일이나 학부모 모임, 좋은 정보 찾기에 열정을 쏟는다. 대체로 많은 부모들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한다. 하지만 딱 하나 해 주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이를 있는 그대로 봐 주고 자기만의 시간 속에 내버려 두는 일이다.

“주말에 아이가 친구 생일 파티에 간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걱정이 돼요. 초대장도 없고 친한 애도 아니고 요새 집에서 생일 파티 하는 경우가 없거든요. 그 애 엄마한테 전화해서 진짜로 집에서 생일 파티를 하는지, 몇 명을 초대할 건지 물어보고 판단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처음엔 이게 격정인지 못 알아들었다. 아이들끼리 초대하고 초대받은 것이고, 그래서 아이가 주말에 다녀오면 되는 것인데 왜 엄마가 걱정일까요 싶었다.

알고 보니 엄마의 걱정 포인트는 아이

말만 듣고 파티에 보냈다가 실제로 파티에 초대받지 않았거나 파티가 열리지 않으면 상처받을까 두렵다는 것이었다. 사실이 얘기를 듣고 놀랐다. 엄마 입장에서 아이가 상처받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라지만 그것은 애초에 자기 아이를 신뢰하지 못하는 것이고, 아이의 경험을 원천 봉쇄하는 것과 다르지 않으니 말이다.

“반호대로 돌아가면서 ‘하루 반장’을 하기로 했어요. 날짜로 보면 우리 애 차례가 한참 지났는데, 아이한테 물어보면 아직 반장을 안 했대요. 옆집 애 엄마는 벌써 두 번이나 했다고 은근히 자랑하는데 속삭해 죽겠어요. 혹시 선생님님이 우리 아이를 미워하는 건 아닐까요?” 이렇게 생각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사정들이 얽혀 있었다. 맥락을 이해하려면 무엇보다 팩트 체크가 먼저. 그래서 아이랑 학교에서 있었던 이야기를 나눠 보고 그래도 궁금하면 선생님께 직접 물어보는 것이 좋겠다고 조언했다. 자신의 감정과 걱정과 속상함에 사로잡히면 객관적으로 상황을 이해하는 일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이튿날 아이는 순서대로 하루 반장을 했다고 소식을 전해 주어 맥이 풀렸다. 두 번이나 반장을 한 아이는 선생님 말을 안 들어서 그런 것인데, 정작 그 애 엄마는 자기 아이가 잘해서 그런 줄로 안다는 ‘웃픈’ 이야기다. 반장을 똑똑하고 잘라서 감투 하나를 쓴 것으로 생각하는 바탕 때문

에 일어난 해프닝이었다. 젊은 엄마들의 분주한 걸음과 흔들리에 달고 살면서 스스로 소진되어 현재를 살지 못했다. 교육을 너무 많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덤벼고 결국 끊임없이 그 보상을 요구해 왔다. 교육과 돈의 거래, 사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는 아이들, 소비가 놀이가 되었을 때 배움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서운 현실이다.

아이들은 ‘대 놓고 화내는 것’을 ‘대화’라고 한다. 돈 많고 시간 많고 체력 좋은 엄마를 안 좋은 엄마라고 한다. 없는 돈과 시간을 들여 최고의 체험학습 코스를 짜고 “이런 방향 너무 의미 있었지?” 묻는 엄마에게 “난 의미가 싫어” 한 방 먹인다. 물리적으로는 있지만 심리적으로는 부재하고, 공급하는 부모는 있지만 공유자 부모는 없다. ‘있는 부모’로 존재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내 아이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유일

한 것은/ 내가 먼저 잘 사는 것/ 내 삶을 똑바로 사는 것이었다/ 유일한 자신의 삶조차 자기답게 살아가지 못한 자가 미래에서 온 아이의 삶을 함부로 손대려 하는 건/ 결코 해서는 안 될 월권행위이기에/ 나는 아이에게 좋은 부모가 되고자 안달하기보다/ 먼저 한 사람의 좋은 벗이 되고/ 닳고 싶은 인생의 선배가 되고/ 행여 내가 후진 존재가 되지 않도록/ 아이에게 끊임없이 배워 가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나는 그저 내 아이를/ ‘믿음의 짐목’으로 지켜보면서/ 이 지구별 위를 잠시 동행하는 것이었다” (박노해 시, ‘부모로서 해 줄 단 세 가지’에서)

부모는 오늘 하루 우리 아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바라봐 주고, 지금 행복해야 한다고 말해 주어야 한다. 남의 아이 행복이 내 아이의 행복이고 아이 인생의 주인은 아이라고 외쳐 주어야 한다. 세상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 사는 이유라고 몸으로 보여 주어야 한다.

연두부 같은 어린 존재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기까지 세상을 신뢰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부모라는 이름의 외로운 별들이 잊지 말아야 할, 놀라운 비밀이 하나 있다. 아이들은 부모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기를 바란다. 아이들이 바라는 부모는 ‘자기 삶을 열심히 살면서 반짝이는 눈동자를 지닌 부모’라는 사실이다.

법조칼럼

관성의 법칙



김 용 균
광주지방법원 판사

과학용어 중 ‘관성의 법칙’이라는 용어가 있다. 관성의 법칙은 뉴턴의 운동법칙 중 제1법칙으로 외부에서 힘이 가해지지 않는 한 모든 물체는 자기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관성의 법칙이 사회현상에 빚대어 사용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으나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의 일상에도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누구에게나 자신만의 습관이 있고, 이러한 습관은 일단 한 번 몸에 배이면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게 된다. 이를 의식하려도 한 번 몸에 배인 습관을 바꾸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그것이 좋은 좋지 않던 말이다.

이와 관련해 역사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조선의 왕 중 1명으로 꼽히는 세종대왕의 이야기를 먼저 해 보고자 한다. 세종대왕이 행한 업적 중 현재까지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한글’ 창제가 아닌가 싶다.

당시 조선의 공식 언어는 중국의 ‘한자’였고, 외교정책은 사대주의였으며, 지배이념은 성리학이었다. 이로 인해 당시 조선의 지배계층 내에서는 한글 창제가 조선의 근본을 흔드는 행위로 인식되었고, 최만리를 비롯한 여러 사대부들이 한글 반대 상소를 제출하기에 이른다. 한글은 창제 이후 약 450년 동안 조선의 공식 언어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1894년에 이르러서야 공식 언어로 인정받게 된다.

다음으로 정조에 대해 이야기해 본다. 정조는 완관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단행했는데, 규장각과 장용영의 설치, 화성의 신축, 서얼에 대한 자벌의 철폐 등 당시 양반사대부들에 대항할 인적, 물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노력했다. 이로 인해 조선은 마지막으로 회생할 기회를 가지게 되지만(이건 어디까지나 필자 개인의 생각이기는 하다), 1800년 정조의 갑작스

런 죽음으로 20여년에 걸쳐 이루어지던 여러 개혁 조치들이 정조 이전으로 회귀한다.

물론 위와 같은 한글창제나 정조의 개혁적 조치들을 여러 관점에서 볼 수 있으나, 여기서는 앞서 본 관성의 법칙과 연관지어 ‘변화의 어려움’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기로 한다.

역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과연 역사는 진보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이 있음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필자는 아직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릴 수 없고, ‘진보’라는 개념이 너무 거창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가 어떠한 측면에서 ‘진보’한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과거보다 조금은 더 나은 아니 조금은 덜 불합리한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의 노력을 가리키는 게 아닐까 싶다.

물론 세종대왕처럼 비록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노력의 결실이 빛을 발할 수도 있고, 정조처럼 자신의 평생을 바쳐 노력했던 것들이 자신에게 불거뿐어 되어 그 흔적조차 대부분 사라져 버릴 수도 있다.

이처럼 기존의 것을 조금은 더 나은 아니 조금은 덜 불합리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심지어 자신은 그에 따른 결과를 보지 못하고, 후대에서야 비로소 성취될 수도 있다), 원하는 결과가 아닌 원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래서 그 길이 힘들고 고통스러워 중간에서 그만두고 싶어질 수도 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내가 원하는 어떠한 것도 얻을 수 없다는 점이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거운 이슈 중의 하나는 변화일 것이다. 검찰과 법원 역시 변화의 바람이 불려고 하는 것 같다. 이러한 때에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 또는 불이익을 우려하여 그저 이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기도하는 관성의 법칙에 역행해 한걸음 내딛는 것은 어떻게?

거창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 아니면 비록 나는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할지라도 나의 후배들이나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은 내가 사는 세상보다 조금은 더 나은 아니 조금은 덜 불합리하기를 바라면서 말이다.

‘정신건강 복지법’ 제대로 시행하려면

기 고



신 일 선
광주지살예방센터장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지난해 5월 기존 정신보건법이 정신질환자의 인권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서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대폭 개정되었다.

1995년 제정된 기존 정신보건법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자해나 타해 위험이 있을 때, 법적인 2명의 보호자가 동의하고 1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원을 결정하면 환자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강제입원을 시킬 수 있었다.

이런 강제입원의 규정으로 인해 재산 다툼이나 가족 간의 갈등으로 정상인이거나 경증 환자를 강제로 입원시키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비난을 받기도 하였다. 지난해 9월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신건강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린 것

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현재 국공립 병원 의사 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다시 민간병원 전문의에게 맡기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문의는 의학적 판단만을 하고, 강제입원시 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법원이나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하고 강제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사법입원제도를 제안하였다.

정부는 정신의료기관에 강제입원 중인 환자의 입원 연장 여부를 판단할 국공립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를 추가로 모으고 있지만, 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민간병원 전문의가 아닌 국공립병원의 전문의가 진단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정부는 퇴원한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의 보건과 복지 서비스를 연계하고, 사회복지 서비스를 확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중이다. 그러나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으로 시행 초기에는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된다. 법 시행 이전에도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인력과 시설이 상당히 부족하였는데,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환자들이 퇴원하면서 더 당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과거 미국의 탈원화 과정에서 부작용이 재연될 가

능성이 있다. 미국의 경우, 정신병원을 나와 사회에 적응을 못하고 거리를 돌아다녔고, 일부 환자들은 감옥에 수감되거나 정신병원보다 시설이 더 좋지 않은 요양원으로 입소하는 일이 자주 일어났다. 이러한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특히 가족이 돌보기 어렵거나 무연고자가 되원할 경우, 환자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집중사례관리, 주거서비스, 주간재활서비스, 직업재활서비스 등의 인프라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퇴원에 따른 지역사회서비스 수요를 미리 추정하여 현재의 지역사회 서비스를 기준으로 향후 수요공급 격차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인력, 시설과 예산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개정된 법에 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이미 법은 시행에 들어갔다. 정부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경청하고, 의료계나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신보건법 본연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환자의 치료받을 수 있는 권리도 보장되기를 바란다. 또한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역사회에서의 편견과 낙인을 줄이고, 차별 없이 일반 시민들과 함께 어울려 마실 수 있는 안전한 도시를 기대한다.

社 說

임명과 낙마 사이… 인사 검증 재점검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청와대의 내정 발표 이후 5일 만에 전격 사퇴했다. 둘 다 여러 흠결이 지적됐지만 희비가 엇갈렸다. 외교부장관의 경우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외교 비상 상황’을 조속히 타개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 장관 임명에 앞서 강 후보자가 ‘당차고 멋있는 여성’이라면서 국민 눈높이를 충족한 만큼 야당도 국민의 판단을 존중해 달라고 압박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설득전이지만, 우리가 누차 지적한 대로 야당에 대한 실덕 작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는 안타까운 일이나 당연하다. 지난해 발간한 저서에 나타난 자신의 여성관이 논란이 될 때만 해도 ‘악마의 편집’이라는 옹호론이 없지 않았지만 이후 불거진 20대 때의 ‘물레 천신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

위’였다. 비록 공소시효는 지났지만 현행 형법 기준으로 보면 사문서 등의 위조·변조죄, 사인 등의 위조·부정사용죄 등을 적용할 수 있는 범법 행위를 저지른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2014년 고교 2학년이던 아들이 퇴학당할 처지에 놓이자 교장에게 탄원서를 보내 징계 수위를 낮췄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문제는 법무장관으로서 업무 수행에 결정적인 결격 사유인 이러한 행위가 청와대의 인사 검증에서 전혀 걸러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청와대는 지금까지의 장관 인선과 검증 과정을 냉철하게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지지율만 앞세워 야당을 압박했다. 여론을 등에 업은 설득전이지만, 우리가 누차 지적한 대로 야당에 대한 실덕 작업이 부족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안경환 후보자의 낙마는 안타까운 일이나 당연하다. 지난해 발간한 저서에 나타난 자신의 여성관이 논란이 될 때만 해도 ‘악마의 편집’이라는 옹호론이 없지 않았지만 이후 불거진 20대 때의 ‘물레 천신고’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

‘비정규직 제로화’ 통계조차 파악 못 해서야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국정 과제인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이 혼선을 빚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정규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할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의 통계 자료 구축이 미흡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노동계 안팎에서 대통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고용노동청)은 현재 광주와 인근 지역 사업체 11만여 곳의 노사관계, 근로기준, 고용정책 등을 관찰하고 있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 해소를 통한 고용 평등 개선도 주된 업무다. 한데 고용노동청은 고용 평등 업무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일선 사업체 근로자들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화를 현실화하기 위해서선 공공·민간 부문의 비정규직 근로자 수와 원인 등 지역의 실상을 정확히 파악해야 하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구축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고용노동청은 통계청의 비정규직 현황 통계에만 의존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광주 지역 비정규직 근로자는 18만6000명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33.7%를 차지하고 있다. 전남의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가 광주보다 많은 21만8000명으로 전체의 39.6%였다.

이처럼 상황이 심각한데도 정작 고용노동청은 지역의 기업별 비정규직 수와 임금 상황 등에 대해 거의 손을 놓고 있는 셈이다. 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 하겠다. 일자리 창출과 비정규직의 제로화는 문재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추진하는 국정 과제다. 고용노동청은 조속히 지역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일자리 확충 정책이 공허한 메아리로 끝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청와대의 내각 인사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서면서 ‘탕평’(蕩平)이라는 단어가 여야 논평은 물론 언론에 연일 오르내리고 있다. 한쪽에선 충분히 탕평 인사는 임장이지만 다른 한편에선 코드·보은 인사라고 한다.

탕평은 원래 ‘서경’의 ‘무편무당 왕도탕탕’(無偏無黨 王道蕩蕩)과 ‘무당무편 왕도평평’(無黨無偏 王道平平)에서 나온 말로서, ‘편을 가리지 않고 당을 만들지 않으면 왕의 도가 넓게 펼쳐지고 공평해진다’는 뜻에서 유래했다.

조선 시대 탕평 정치는 영조가 시작했지만 가장 이상 깊은 탕평 인사로는 인조반정 직후의 인사를 꼽는 이가 많다. 서인들이 광해군을 폐출하고 인조를 임금으로 내세우자 인심이 흥룡했다고 한다. 그러자 서인들이 반정 다음날 자신들의 반대 당파인 남인의 영수 이원익을 영의정에 제수하자 민심이 안정됐다는 기록이 여러 곳에 전해 온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의 리더십은 탕평 인사에서 나왔다. 링컨은 당선 직후 내각을 정적이거나 반대파로 채웠다. 국무장관 윌리엄 수어더, 재무장관

재니슨, 법무장관 에드워드 베이츠는 당내 경선 경쟁자였다. 이중 윌리엄 수어더는 지명도가 링컨보다 높아서 반대하는 이들이 많았지만 링컨은 인사를 강행했다. 전쟁장관(국방장관)은 야당인 민주당의 에드워드 스탠턴을 임명했다. 초대 내각 장관 7명 중 4명은 공화당 내 정적이었고, 3명은 민주당이었다. 대통령 재선에서는 그가 임명한 장관인 윌리엄 수어더와 새민 체이스가 또 링컨을 공격하며 도전했으니 장관

자리를 박탈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는 지역 통합적

인 면과 여성 배려, 비주류 등용 등의 측면에서는 탕평에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탕평을 수차례 언급한 바 있으며, 취임사에서는 ‘자신에 대한 지지 여부와 상관 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조려해 일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국민은 대통령이 야당의 주장에 좀 더 귀를 기울이고, 선거 때 경쟁자였던 정치인이나 야당 의원을 발탁하는 진정한 탕평을 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 그것이야말로 ‘문재인 식 대탕평’이지 않겠는가. /채희총 사회2부장 chae@

대탕평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7가1열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63 (FAX 222-4938)	경영지원국 220-0515 (FAX 222-800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7-9500)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2-0195)
정 지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다 지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구독료 월정 10,000원 1월 500원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